

2위만 6번...마침내 우승 한 풀고 '기쁨의 눈물'

최종R 6언더파...찰리 헐에 역전 부진과 악플 겹쳐 힘들었던 2년 "편찮으신 할머니의 응원이 큰힘"

가깝고도 먼 우승이었다. 지난 2년간 정상 문턱 앞에서 좌절한 기억만 6차례. 남몰래 눈물을 흘리던 비련의 주인공은 어렵게 찾아온 7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토록 기다리던 우승 트로피 앞에서 끝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전인지(24·KB금융그룹)가 마침내 지긋지긋한 '준우승 징크스'를 깨트렸다. 14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파72·6316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약 22억원) 최종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몰아친 끝에 16언더파 272타 역전 우승을 이뤄냈다.

●눈앞에서 놓친 우승 트로피만 6개

2015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5승으로 평정하고 이듬해 미국으로 향한 전인지 앞에는 거칠 것이 없어보였다. 그해 9월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을 제패하면서 탄탄대로를 열었다.

그러나 미국 무대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2015년 US오픈 우승(LPGA 비회원 자격)과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으로 들떠있던 루기를 가로막은 장애물은 지독한 준우승 징크스였다. 2017년 무려 5차례의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남몰래 마음고생을 했다. 승부 근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이종고에 아파하던 전인지는 지난해 12월, 약 1년여의 후원사 공백을 깨고 KB금융그룹과 손을 잡고 새 출발했다. 그러나 우승 트로피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다. 5월 킹스밀 챔피언십을 앞둔 시점에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필드 위에 올라 주변을 둘러싸게 했지만, 이 대회마저도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다.

전인지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시점은 이달 초였다. 태극마크를 달고 나선 여자골프 국가대표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포볼 매치 3경기와 최종라운드 매치 플레이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의 첫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단עת 전 우승이었지만 약 2년 만에 맞본 정상 등극의 기쁨은 전인지를 미소 짓게 했다.

●국내 팬들 앞에서 우승 입맞춤

국가대표전 왕관을 머리 위에 얹은 전인지는 다시 힘을 얻었다. 연이어 출전한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10언더파 206타



최종라운드 17번 홀을 마친 뒤 갤러리들과 일일이 손바닥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 전인지(맨 왼쪽). 인천 | AP뉴시스

역대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자			
연도	우승자	연도	우승자
2002년	박세리	2010년	최나연
2003년	안시현	2011년	최나연
2004년	박지은	2012년	수잔 페테르센
2005년	이지영	2013년	양희영
2006년	홍진주	2014년	백규정
2007년	수잔 페테르센	2015년	렉시 톰슨
2008년	캔디 쿡	2016년	캐롤라 시건다
2009년	최나연	2017년	고진영

공통 4위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전인지는 전반에만 버디를 5개나 낚으면서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후반 첫 10번 홀(파4)에서 티샷 실수로 보기를 기록하긴 했지만 파5 13번 홀과 파4 15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하면서 2위 찰리 헐(22·잉글랜드)과의 격차를 2타로 벌렸다. 이어 헐이 16번 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하면서 역전우승이 완성됐다.

우승 직후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전인지는 "되돌아보면 힘든 시간이 많았다. 개인적인 부진과 좋지 못한 댓글이 겹치면서 스스로를 자꾸 바다로 밀어 넣으려고 했다. 이에 주변에서도 힘들어했다. 또한 올해 헤어스타일을 바꾼 뒤에는 또 다른 루머에도 시달렸다"며 울먹였다.

이처럼 필드 안팎에서 힘들어하던 전인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은 가족과 팬들의 응원이었다. 3만여 갤러리 앞에서 역전우승을 이뤄낸 전인지는 "편찮으신 할머니의 '건강해야 돼'라는 한마디 큰 힘이 됐다. 또한 팬들께서도 오랫동안 응원을 해주셨다. 정말 감사드린다"며 "어렵게 우승을 한 만큼 다시 예전의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천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전인지가 14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의 17번째 우승이자 마지막 챔피언십으로 등극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 |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대회본부

막내린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환희의 17년, 넌 감동이었어

LPGA와 계약 만료로 역사 마무리

안녕,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태극낭자들의 성장과 영광을 함께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이 17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2년 국내 최초의 LPGA 투어 정규대회로 출범한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은 14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17번째 우승자 전인지를 배출시키며 대장정을 마쳤다.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의 역사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J나인브릿지 클래식이라는 이름 아래 제주도에서 서막을 열었다. 이는 한국골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순간이었다. TV로밖에 볼 수 없던 세계 정상급 골퍼들을 국내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커다란 화제였기 때문이다.

대회는 '골프 여왕' 박세리가 초대 우승자로 등극하면서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이어 안시현(2003년), 박지은(2004년), 최나연(2009~2010년), 고진영(2016년) 등이 우승을 차지하며 명맥을 지켰다.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이 주목을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승 선물이 LPGA 투어 직행권에 있었다. 안시현과 이지영(2005년), 홍진주(2006년), 백규정(2014년), 고진영 등 국내 무대에서 활약하던 선수들이 우승을 발판삼아 미국으로 향했다.

이처럼 슬한 이야기거리를 남겼던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은 그러나 올해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LPGA 측이 BMW와 손을 잡고 내년부터 신설대회를 출범시키면서 계약만료가 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더 이상의 연장계약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주최사인 하나금융그룹은 대신 이 대회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내년 10월 같은 장소인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초대 대회(가칭 하나금융그룹 코리아오픈)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 | 고훈준 기자

축구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벤투호 척추 '기·장·정'...아시안컵도 문제없다

(기성용-장현수-정우영)

벤투 감독 강조 빌드-업 역할 충실 아시안컵 우승 도전 핵심멤버 증명

대한민국 축구가 10월 A매치 시리즈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 평가전에서 2-1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타리카~칠레로 이어진 9월 2연전에서 1승1무를 챙긴 대표팀은 10월 첫 번째 A매치를 승리로 장식했다. 16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파나마 평가전에서도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내면 벤투호는 공식 출범 이후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게 된다.

장기적으로 2022카타르월드컵에서의 선전을 목표로 벤투 감독의 당면 과제는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개최될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다. 1960년 대회 이후 통산 세 번째 정상을 차지하는 한국축구가.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호주~우즈베키스탄과 원정 2연전을 치를 계획인 벤투 감독은 10월 엔트리를 발표하며 "아시안컵 준비 과정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일까. 대표팀은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베스트 라인업부터 포메이션이 매 경기 큰 차이가 없다. 거의 일치한다. 메이저 국제대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전략~전술을 바꿀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짧은 소집기간, 팀 철학을 정립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인체를 바로 세우는 힘이 척추에서 나오듯, 아시안컵을 위한 컬러 굳히기에 나선 대표팀도 뼈대부터 단단히 다져가고 있다. 핵

심은 후방 삼각편대다. 기성용(29·뉴캐슬 유나이티드)~정우영(29·알 사드)이 수비형 미드필더 콤비로 나선 가운데 장현수(27·FC도쿄)가 중앙수비수 역할을 한다.

세 차례 A매치가 전부 동일했다. 4-2-3-1 포메이션의 후방과 가운데를 책임지며 공격과 수비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했다. 빈 자리를 찾아가 공간을 메우고, 상대를 차단하는 기성용~정우영의 1차 저지에 이은 장현수의 최후방 블로킹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특별히 인상적인 부분은 공격이다.

이들은 벤투 감독이 꾸준히 강조해온 후방 빌드-업에서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펼친다. 볼을 구성구석으로 뿌려주며 공격을 전개시켜 합격점을 받았다. 간혹 실수가 나오긴 하나 충분히 보완 가능한 부분이다.

우루과이전에서 유감없이 실력을 뽐냈다. 기성용은 언제나 그랬듯 전방위적으로



기성용

장현수

정우영

움직였고 정우영은 세트피스(코너킥) 과정에서 흘러나온 볼을 곁슬골로 연결했다. 장현수도 볼을 잡으면 주저함 없이 정확한 패스로 공격의 물줄기가 됐다. 벤투 감독은 이례적으로 "(장현수는)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자원"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끊이지 않는 비난에 방패막

이를 자처함으로써 최대치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셈이다. 연령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베테랑 3중사는 아시아 정복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들이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플랜A부터 확실하게 굳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